

12월 23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숨가쁜 원화 약세 속도 잠시 늦춰질까

서울, 12월2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1450원 부근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35-1455원이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한 달러/원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단이 활짝 열린 가운데 저항선을 찾는 의미는 없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더딘 금리 인하 스탠스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더해진 국내 정국 불안까지 원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외환당국이 연일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변동성 관리에 주력하는 부분이 원화는 약세 속도를 늦추고 있을 뿐이다.

지난 주말까지 외국인들의 월간 순매도 규모는 3조원 수준이다. 결국 아직은 코스피나 원화에 대한 극심한 저평가를 논할 때가 아니다. 내년 초 코스피나 원화에 대한 추가 하방압력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짙다.

다만,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휴일로 주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이렇다할 지표나 이벤트도 예정돼있지 않아 전반적인 국내외 금융시장이 숨을 고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 직후 2년래 최고치로 급등한 달러지수도 107선 후반으로 다소 밀린 가운데 금주 글로벌 달러가 강세 보폭을 줄인 채 횡보해준다면 달러/원은 1450원 앞에서 저항을 유지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최근과 같은 위안 약세 조절 흐름이 전제돼야한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달러 매도 매물에 대한 인식이 크지만, 강달러 전망과 함께 원화 약세 전망이 워낙 강한 터라 통상적인 수급 패턴을 대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환율은 상·하단이 막힌 좁은 레인지 흐름이 무난하게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4일 12월 소비자동향조사와 금융안정보고서를, 25일에는 2025년 통화신용정책운영방향을, 26일에는 2025년 위안/원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발표한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산타클로스' 랠리 기대와 우려

뉴욕, 12월23일 (로이터) - 투자자들은 뉴욕 증시의 연말 분위기를 기대하면서도 잠재적인 역풍도 경계하고 있다.

벤치마크 S&P500지수.SPX는 지난 주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23%이상 상승했고, 뉴욕 증시는 종종 역사적으로 매년 강한 마감세를 보여왔다.

1969년 이후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첫 이틀을 합한 S&P500 평균 상승률은 1.3%로, 이 기간을 '산타클로스 랠리'라고 부른다고 스타크 트레이즈의 알마낙은 설명한다.

하지만 올해는 산타클로스가 실망할 조짐이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예상보다 적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지난 수요일 S&P500지수는 8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 내부적으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12월들어 S&P 500 11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으며, 평균 지수 종목 지표인 동일 가중 S&P500.SPXEW은 7% 하락했다.

자산운용사 밀러 타박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연말 증시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고 말했다. 연준 회의 이후 지난 목요일 벤치마크 10년물 수익률은 4.55%를 기록해 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LSEG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지수가 과거 평균 15.8배를 훨씬 웃도는 21.6배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 급등은 주식 밸류에이션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다.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우리는 마침내 사람들이 주 시장이 매우 비싸고 연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최고 경영자 척 칼슨은 지난 주 하락은 증시의 거품이 제거되어 "반등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강제 추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알마낙에 따르면 산타클로스 기간은 1월의 첫 5일 거래일과 1월 전체 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 해 실적의 전조라면서 이 지표가 긍정적일 때 지난 50년간 증시는 90% 이상 상승세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칼슨은 "올해는 시장이 강세를 보인 한 해로, 12월이 아닌 11월에 연말 랠리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 랠리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도 연말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이달까지 각각 26%와 12% 이상 상승한 테슬라TSLA.O와 알파벳GOOGL.O을 포함한 여러 대형주가 12월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브로드컴 AVGO.O의 주가는 이달 맞춤형 인공 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시장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후 12월 들어 35%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점점 더 열어지고 있다. S&P500 구성종목 중 하락 종목은 지난 수요일 기준

13회 연속 상승한 종목을 앞질렀는데, 이는 LSEG 데이터에서 2012년 이후 최장이다.

또 다른 걱정스러운 신호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는 S&P500 주식의 비율이 지난 수요일 기준 56%로 하락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엘피엘 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말했다.

그는 "지지선이 형성되고 모멘텀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2월23일 (월)

- ⊙ 관세청: 12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총재 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 (11: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5:30)
- ⊙ 한국은행: 2025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12월24일 (화)

- ⊙ 한국은행: 2024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비통방) (09: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 (11:00)
- ⊙ 한국은행: 2024년 제23차(12.4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12월25일 (수)

- ⊙ 성탄절
- ⊙ 한국은행: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12:00)

12월26일 (목)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금융상황점검 TF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중기중앙회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2025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수출금융 간담회 (16:30)
- ⊙ 기획재정부: 2025년 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 포함) (17:00)
- ⊙ 기획재정부: 2025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 및 1월 발행계획 (17:00)

12월27일 (금)

- ⊙ 한국은행: 2024년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2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2월 23일	22:30	미국	전미활동지수	11월		-0.40
12월 24일	00: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2월	113.0	111.7
12월 24일	22: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11월		1.505M
12월 24일	22:30	미국	내구재주문	11월	-0.2%	0.3%
12월 25일	00:00	미국	신축주택판매	11월	0.670M	0.610M
12월 26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16일 주간		224.0
12월 26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2월16일 주간	223k	220k
12월 27일	08:30	일본	도쿄 CPI	12월		2.6%
12월 27일	08:30	일본	실업률	11월	2.5%	2.5%
12월 27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11월	-3.4%	2.8%
12월 27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11월	1.7%	1.3%
12월 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11월		-4.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24일 (화)

- ⊙ 일본은행 10월30-31일 회의록 (오전 8시50분)
- ⊙ 호주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오전 9시30분)

12월25일 (수)

-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게이단렌 회의서 연설

⊙ 휴장국가: 미국, 독일, 영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12월26일 (목)

⊙ 휴장국가: 홍콩,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2월26일 (목)

⊙ 일본은행, 12월18-19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트럼프 인수위, 바이든의 전기차·배기가스 정책 전면 철회 계획

12월17일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인수팀은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및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전면적인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적이 없는 이 권고안은 미국의 전기차 전환이 정체되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우수한 배터리 공급망 덕에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화석 연료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수팀은 또 미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동맹국들과 개별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안을 종합하면 중국과 별도로 국내 배터리 공급망 장려와 빠른 전기차 전환의 균형을 맞추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현재 충전소를 건설하고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드는데 쓰이는 자금을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 공급과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의 확보 등 국방 우선과제로 돌린다는게 인수팀의 계획이다.

인수팀은 또 지난달 로이터가 처음 보도한 소비자 전기차 구매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7,500달러 세금 공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제너럴 모터스 GM.N 와 현대자동차 005380.KS 를 비롯한 많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미국 시장에 더 다양한 전기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전기차 판매 및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의 전기차 지원금 삭감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TSLA.O 의 판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2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삭감이 테슬라보다 경쟁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팀은 충전소 건설을 위한 바이든의 75억 달러 규모 계획에서 남은 자금을 회수하고 그 자금을 배터리-광물 가공과 "국방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건은 배터리, 광물 및 기타 전기차 부품은 "국방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인수팀 대변인 캐롤린 리빗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내연기관차에 대한 정부 공격 중단을 포함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리빗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 자동차 모두를 위한 공간을 허용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中, 2025년 예산 적자 GDP 4%로 확대 계획..사상 최고

12월17일 (로이터) - 중국 지도부는 지난주 경제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유지하고 내년 예산 적자 목표를 사상 최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두 소식통이 밝혔다.

새로운 예산적자 목표는 2024년 초기 목표는 GDP의 3%보다 높은 것이며, 12월 정치국 회의와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CEWC) 이후 주요 관리들이 합의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일치한다.

GDP의 1%포인트에 해당하는 추가 지출은 약 1조3,000억 위안(1,794억 달러)에 달한다. 언론과의 인터뷰 권한이 없어 익명을 요구한 두 소식통은 예산 외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추가 부양책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는 일반적으로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며, 그 전에 변경될 수도 있다.

국무원 정보실과 재정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두 소식통은 중국이 2025년 약 5%의 GDP 성장률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